

승리하는 비결들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3172007

2007년 7월-9월

가

가

[ ]

5  
10  
15  
20  
26  
31  
36  
41  
47  
52  
57  
62  
67 144,000

:  
:  
2 32  
:  
:  
: 054 - 435 - 1843  
: 054 - 434 - 4521

[www.sdarmgc.org](http://www.sdarmgc.org)( )

[www.sdarm.or.kr](http://www.sdarm.or.kr)

e-mail  
[sdarm@sdarm.or.kr](mailto:sdarm@sdarm.or.kr)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놀라우신 구주와 함께 영원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우리는 제칠일 재림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소망이 곧 성취된다는 것을 안다. 대쟁투는 우리의 모든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실한 반면 우리 각 사람은 또한 개개인의 싸움을 하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비결을 마련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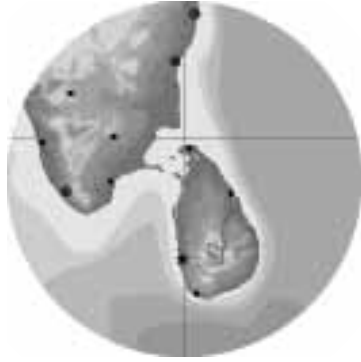
이번기의 우리 연구의 초점은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4,000인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인 재림기별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저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죄를 온전히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바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열두 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로 구성된다. 이 열두지파는 더 이상 혈통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기질이나 경향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 지체로서의 그대가 속할 지파는 그 주요한 약점이나 죄가 그대가 또한 정복하기 가장 힘든 것과 같았던 그 지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끈기있는 믿음을 통하여 야곱은 정복자가 되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의 한 사람을 포함한 열한 사람의 이름들을 지닌 남은 무리는 예수님 앞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서게 될 144,000인의 인 맞은 성도들로 구성될 것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될 깊은 통찰력이 있다. 승리에 붙타고 있는 영적 지파들의 여러 지체들로서 우리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 독특한 지파로부터 나오는 각 지체들이 쉽게 이해될 수 없거나 다른 지파에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실망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당할지도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를 통하여 완전함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전 12:17-20).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연구함으로써 “위험들이 모든 길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므로 승리가 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교회증언 4권, 538)임을 명심하자. 주께서 각 안식일 학교 학생들에게 고귀한 승리를 얻도록 힘주시기를 빈다.

-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



지난 25년 동안의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내전을 겪는 동안 스리랑카는 복음을 위한 참된 성공의 이야기가 있다. 스리랑카의 주요민족인 대다수의 신할리족과 소수의 타밀족 전사들 사이에서 선교사들과 성경 교역자들은 이 섬 나라에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데 영웅들이 되어왔다.

1952년 이전에 실론이란 국가로 알려진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인도양의 진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 섬나라는 그동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그후에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1948년 2월 4일에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약 70%는 불교도들이다. 그다음으로 큰 종교는 힌두교도들로서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로 이 나라 북부의 타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도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구원의 기별은 1세기경 사도인 도마가 이 섬나라에 첫 선교사로 파견되었으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15세기에 이 섬나라에 로마 가톨릭 교리를 전했으며 개신교 교리는 17세기에 네덜란드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식민지로서의 지배를 받아오던 마지막 시기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감소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며 그 중에 88%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다.

개혁사업은 지난 세기에 이 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주로 이 나라의 남서부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개혁자들은 이 나라 어디에서든지 발견된다.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교인들은 군사적 충돌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통하거나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다.

이번 달 우리는 특히 스리랑카의 시골과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대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후한 연금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린다.

-스리랑카 대회 행정위원 일동-

“

”( 33:6).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굴복될 수 없는 확고부동함이 있다. 우리는 도덕적 짓대, 곧 우쭐해지거나 매수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는 진실을 소유해야 한다.” - 치료봉사, 498.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43-48.

마음과 품성과 개성 2권, 685-689.

7월 1일

1.

가.

가? 29:32.

.

. 49:3.

.

가

가

. 30:14 ( ); 37:21, 22, 29; 42:22.

“[요셉의 형제들은] 르우벤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 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 부조와 선지자, 211.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들에게 판 후에]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 부조와 선지자, 212.

## 2.

가. 가 가?  
35:22 ( ); 49:4. 가? 5:1.

“[창 49:3 인용].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장자로서 르우벤의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에텔에서 범한 그의 무서운 죄가 그로 하여금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묶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35.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악한 범죄가 야곱의 가족을 더럽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의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06.

. 20:12,  
14; 5:11 - 13.  
가?

“일곱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권리가 정지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집의 교제나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증언, 248.

“양떼의 목자로 있으면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견책과 경고와 간청을 했지만 그 악한 길을 숨기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행함으로 음란한 짓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내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그들을 개혁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 본 후에 그들 스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영혼의 수호자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28.

## 3.

가.

가

가? 42:37, 38.

49:3, 4

가?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효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부조와 선지자, 235.

가? 11:8; 11:32 ( ); 16:25 ( ).

가? 12:12, 13.

“그대는 지능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마침내 하늘에 적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대는 도덕적 능력이 약하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그대의 죄악적 옛 생애의 습관과 행습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주 낙심한다. 그대는 그대의 정서적 본성이 그대 자신에게, 그대의 최선의 결정에, 그리고 그대의 가장 엄숙한 서약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대의 불안정은 그대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진실을 의심하게 한다. 그대가 의심 가운데서 더욱 투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그대에게 더욱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며, 마침내 어떤 곳에도 그대를 위한 견고한 땅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된다. 그대의 약속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가 신임해야 할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똑같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대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믿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약속이나 그대의 믿음은, 믿음과 행동의 측면에서 그대의 의지를 활용하고자야 비로소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대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13.

4.

가.

20:5 (    ); 34:7 (    ).

3, 4

가?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 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 주를 가져왔다.” - *부조와 선지자*, 118.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지적 감각력이 죽 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74.

가? 1:2, 8, 20, 21.

가? 1:16 - 19; 2:11; 7:1.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다. 사 단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 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 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 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 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부조와 선지자*, 378.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들의 식욕과 정욕을 유산으로서 물려받는다.” - *영문 시조*, 1880.7.1.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해 타락한 것은 식욕의 방종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의 실패를 만회하셨다. 시련의 광야에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실패한 시험을 견디셨다. 주 님께서 가장 혹독한 허기증으로 괴로워하시고 금식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탈진되었 을 때에 사단은 그분께서 허약해지신 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혹으로써 하나님의 아 들을 공격하여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접근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확고 부동하셨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타락과 퇴화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 하여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을 동정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나약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욕과 식욕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 *SDA의 외방선 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7, 208.



5.

가.

가? 33:6; 7:5 ( ). 가 가?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풀이 죽고, 쉽게 낙심한다. 그들에게는 추진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되는 적극적인 특성, 곧 열성이 타오르게 하는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고 희망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적극적인 덕성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덕을 계발해야 한다. 그들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대답을 해야 하는 한편, 악을 저항하는 영웅적인 용기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과 함께 그들의 감화력을 적극적인 세력이 되게 해 줄 품성의 힘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확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과 계획에는 분명한 형태와 일관성이 없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비능률적인 것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치료봉사, 497, 498.

가  
144,000 가 가? 5:16; 3:40; 3:21.

## 7:49

1. 어떤 초기의 경험들이 르우벤의 본성의 좋은 점을 드러냈는가?
2. 간음죄는 어떻게 품성의 착실치 못함을 드러내는가?
3. 착실치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권면이 주어질 수 있는가?
4. 이스라엘 자손이 선조들의 연약함 때문에 당한 결과들을 말하라.
5.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착실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가?

“

”( 16:32).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 *시대의 소망*, 301.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4권, 362-366.*교회증언* 4권, 346-350.

7월 8일

## 1. 가

가. 가 가? 29:33.

. . 30:21; 34:1-4.

. 가? 20:11.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창 34장 참조]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 *부조와 선지자*, 204.

## 2.

가. 가 가?  
34:13 - 19, 24 - 26.

. 가  
. 34:30, 31.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학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 부조와 선지자, 204, 205.

. 가? 37:18 - 20.

“그들의 아우[요셉]을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 부조와 선지자, 226.

. 가 가? 26:12.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첫째로 삼고자 하는 자들과 연관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은 잃게 될 것이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에서 있다. 사람이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에 젖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마 9:12). 그가 그의 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교회증언 7권, 199, 200.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위대한 지식이다. 참된 자기 인식은 겸손한 정신을 갖게 하여 주님께서 정신을 계발시키고 품성을 형성하며 단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19.

## 3.

가.

가? 49:5-7.

“[시므온과 레위는] 연합하여 세겔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도다’ ...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 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聖地)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부조와 선지자, 235, 236.

25:28; 2:9; 3:15.

가?

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모는 배양되어야 한다.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부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처럼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며, 좀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항상 더 좋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의 생애는 무거운 십자가와 시련으로 짐에 눌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성질을 제어하고 그의 혀를 통제했다면 이 많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다. 복수심은 적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다.” -교회증인 4권, 367, 368.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질을 자극하여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매일, 매년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과업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까지도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없다. 싸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힘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치료봉사, 487.

## 4.

가.

. 1:22, 23; 25:1 - 5, 9; 26:2, 14.

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 부조와 선지자, 235, 236.

가? 13:26; 7:1, 5, 26, 27.  
가?

가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부도덕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다.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이다. 악이 그 흉악한 머리를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쳐 든 때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이 보이며, 덕성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악의 대담성, 힘, 편만함으로 거의 낙망하고 있다. 편만한 악은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비웃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조차 그 사건을 위하여 사단 자신보다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부패에서 깨끗이 하고 있지 않다.” - 교회증언 2권, 346.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간음죄를 범한다.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도덕적 원칙은 철저하게 실행될 때 영혼의 유일한 안전책이 된다. 식사를 가장 단순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육류가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그 영향은 보다 저열한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하며 도덕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이어야 한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정욕은 더욱 쉽게 제어된다. 신체적 · 지적 · 도덕적 건강을 무시한 식욕의 만족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 교회증언 2권, 352.

## 5.

가.

가?

42:6, 7, 17, 24.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225.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있는 방으로]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26.

“[그후에 형제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나온 시므온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부조와 선지자, 228.

가?

16:32; 1:16-19; 5:6, 9.

가? 7:7 ( ).

“자아(自我)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치료봉사, 485.

“호색이 이 시대의 죄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자유분방함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잡는 정책들을 유지할 것이다. 도덕적 능력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의료봉사, 142, 143.

## 7:47

1. 디나의 경솔한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2. 시므온의 잔인성을 더욱 심화시켰던 행동을 말하라.
3.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하늘 가나안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4. 오늘날의 방탕을 피하기 위하여 몇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말하라.
5. 투쟁하고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 가

”( 3:3).

“[레위]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에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3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245-252.

교회증언 3권, 540-544.

7월 15일

1. 가

가.

가? 29:34.

[참조]: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애착심을 갖게 하다”는 의미이다.

.

가? 49:5-7.

. 가

가? 37:8; 27:4 ( ).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질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모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들에 관한 헛된 소문이 나돌 수도 있겠지만 곧은 길로 행하여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평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 두도록 하자. 그리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자제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노하기를 더디 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중상모략을 당한 오명은 생활 태도를 씻어지는 것이지 화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주석[E.G. 화잇] 3권, 1160, 1161.

## 2.

가. 가? 32:1, 6, 9-11.  
가 가?

“[시내산에서의]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범죄 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조와 선지자, 324.

“[출 32:26-29 인용됨] 여기에서 모세는 진정한 헌신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는 것이며, 지극히 불쾌한 의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가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요구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레위 자손들은 범죄와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였다.” -교회증언, 3권, 301.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협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사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적, 361.

( 49:5-7)

가? 33:8-11.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 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부조와 선지자, 350.



## 3.

가.

. 2:1 - 10.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감화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욱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 가! 장래의 모세의 전 생애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 부조와 선지자, 243, 244.

가? 32:21 - 25.

가? 10:1 -

7.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나답과 아버후를 멸망시켰을 때] 아론은 인내와 겸손한 굴복으로 이 혹심한 시련을 견뎠다. 슬픔과 예리한 고뇌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는 자기가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깨달았다... 아론은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러한 것처럼, 과오 속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과 방종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멸망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 교회증언 3권, 295.

“[레 10:6, 7, 3 인용됨] 아론은 말이 없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을 안 아버지의 마음은 격심한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나타냄으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징계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 부조와 선지자, 361.

## 4.

가. “ ( 49:7)  
 . 3:45; 18:20 - 24; 10:8, 9.

10:11. 가? 11:13;

“성소의 봉사에 임명된 봉사자들인 레위 지파는 토지의 분깃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놓은 성읍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러진 십일조와 헌물들로 부양되었다.” - 교육, 148.

가  
 . 7:4 - 8.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매우 분명하고, 명백한 기별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그들이 비록 그들 스스로에게는 선한 일이지만 주께서 십일조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에 십일조를 사용하므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십일조를 사용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획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학교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서원들과 문서 전도자들이 십일조에서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십일조가 사용되어야 할 목적, 곧 목사들을 부양하는 목적에서 이탈될 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오늘날 한 사람밖에 없는 일터에 자격을 잘 갖춘 일꾼이 일백명 있어야 한다.” - 교회증언 9권, 248, 249.

가  
 가? 11:13, 14, 16, 17.  
 . 5:18 - 20; 4:1 - 3, 15, 16.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로 그 택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사업을 진행시키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돕게 하신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위치는 대단히 책임이 중대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의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써만 그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다.” - 복음 사역자, 13.

## 5. “ ”

가.

9:1; 2:8, 9; 10:30 - 32.

가?

가? 3:3.

7:7 ( ).

“우리는 전진적인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고정적인 견해, 감정, 행동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적이다. 개혁은 수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개혁의 자동차를 이끌고 움직여 나가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인내와 야망으로 절제되고 지혜로 균형을 이루는 활력은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되고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왜소해졌으며 발육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이끄는 일에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하겠는가! 우리의 표어는 항상 ‘위를 향하여, 더욱 더 높이’ 가 되어야 하며, 분명하고도 끊임 없이 의무를 향해서, 또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행하실 과정, 곧 연단하고 순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오직 이 과정을 통하여서만 더럽고 쓸데 없는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다. 우리의 시련은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데 모두 필요한 것이다.” - 교회증언 3권, 540, 541.

## 7 : 43

1. 무엇이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의미의 심장함인가?
2.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의 경험을 말하라.
3. 레위사손들의 흠어짐과 십일조의 문제를 설명하라.
4. 레위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데 도구가 되었는가?
5. 하나님의 연단시키는 과정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라.

“ 가 ( 49:10).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35.

참조할 연구교재: 예언의 신 1권, 377.  
정로의 계단, 115, 124-126.

7월 22일

1.

가. 가 가? 29:35.  
가? 50:23.“ ”  
( ).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과 다함없는 사랑의 나타남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불평 대신에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참되고 부드럽우며 동정 많은 양무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에 관하여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언어는 이기적인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아닐 것이다. 맑은 물의 흘러감 같은 찬양이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67.

37:25 - 27. 가?  
38:24 - 26. 가?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 떼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隊商)이었다. 그 때에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11.

## 2.

가. 가

44:14 - 18, 30 - 34; 46:28 ( ).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유다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창 44:30-34 인용됨.]...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 부조와 선지자, 230.

42:36 - 38);

5:2.

43:8 - 13 (

가?

“우리들은 거의 모든 것이 피상적이며 천박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유년 시대로부터 받는 자녀들의 훈련과 교육이 천박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품성의 안정성과 견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저들의 품성은 미끄러운 모래 위에 세워졌다. 극기와 자제력이 저들의 품성 가운데 형성되지 않았다.” - 교회증언 3권, 143.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자신의 이기적 이익에 치중해 있고 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 교회증언 2권, 636.

“우리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것은 설교단에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신앙이다. 목사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서 조력자로 일하는 자들은 그의 경건을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은 가정에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아내와 자녀들과 조력자들은 그의 신앙 때문에 더욱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 교회증언 5권, 161.

“어떤 사람이 외견이 수려하지 않고 많은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그가 곧은 정직으로 명성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진리의 사랑, 사람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의뢰와 확신은 그의 품성의 좋지 않은 면들을 제거하거나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직임과 부르심에서의 신뢰성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려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353.

## 3.

가. 가? 49:8.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부조와 선지자, 236.

가? 49:9; 28:1.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 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36.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워 오에 따라 우리는 더욱 열렬히, 더욱 굳게 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회 전체와 대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병 같은 흥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에서 난 용기가 필요하다.” -교회증언 6권, 475.

“어떤 사람들은 확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퍼티(putty)로 만든 공과 같아서 마음대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분명한 형태와 견고함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곳이 없다. 이런 유약함과 우유부단과 무능은 극복되어야 한다. 역경에 의하여 끌 지워지거나 굴복 될 수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불요불굴이 있다. 사람들은 도덕적 용기, 우쭐해지거나, 매수당하거나, 위협당할 수 없는 정직이 있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29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또 이를 행하기 위해서 전력하며 항상 그 신성하고 지극히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기를 바라신다.” -복음 사역자, 291.

## 4.

가.

가?

31:1 - 5.

“모세가 산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때에 각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대한 교훈을 주셨다.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님께서 모든 세심한 일에 완전성을 요구하셨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숙달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으나 그는 조각하는 법과 수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한 특정한 일을 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 알려 주셨다. 브사렐을 지명하여 건축기사로 삼으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대(優待)하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59.

30; 14:24.

13:6,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정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곳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동요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老戰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 부모와 선지자, 512, 513.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 교회증언 5권, 130.

가? 1:1, 6-8; 3:16-18.

## 5.

가.

가?

49:10; 7:14-16; 21:9.

“다윗과 그 집에 하신 말씀, 영원한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은 영광스럽다.” -부조와 선지자, 754.

가? 33:1, 7.

가? 7:5 ( ).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분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좌 주위를 둘러싼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은 가장 찬란하며, 귀한 감사의 노래가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들릴 것이다. 적은 실망과 곤란함 때문에 생기는 불평하고 투덜거림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금으로된 언약을 바를 때에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사단의 음산한 그림자를 가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의 향을 드리는 우리의 옹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대로, 실상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다양함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68.

## 7 : 38

1. “유다”라는 이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 힘을 설명하라.
2. 유다가 그의 가정 생애에서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3. 유다 지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묘사하라.
4. 브사렐과 갈렙과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몇 가지 특성들을 말하라.
5. 유다를 위한 모세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하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긴급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은 젊은 남녀 군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것이며 그들이 언행일치하고 균형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며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업과 함께 신령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처에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교육의 결핍이 애처롭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이 가정생활의 의무에 적절히 성취되어야 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유용성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또한 생애의 다양한 책임들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하여 학교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열심히 믿는 성도들의 헌신아래 개교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한 그 대들과 자녀들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하여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제 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과 열의를 갖고 협력하도록 하라.”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202.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포도원에서 수고할 젊은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선교학교들이 설립되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 개혁기별이 세상의 여러 지역들에 거의 전파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더욱 유능한 사역자들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전역에 더욱 많은 선교학교들이 세워져야 한다.

2007년 8월 4일 이 중요한 사업에 그대들의 도움이 요구됨을 기억하고 이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 성취되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M. 나타라잔, 세계 대총회 교육부장-

“

( 4:12)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에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날 교회에는 훨씬 더 건전한 상태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9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4권, 193-197.

교회증언 5권, 94-98.

7월 29일

1.

가. 가 가?

30:1-6.

가?

“시기심과 완고함은 이기심의 자연적인 열매이다.” -교회증언 2권, 545.

“동료 일꾼들이여, 우리는 각각 인생의 들판에 씨를 뿌리고 있다. 씨가 어떠한 수확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슬픔을 뿌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슬픔을 거두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0.

“질투, 시기, 좋지 못한 추측, 험담 등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한다.” -교회증언 6권, 42.

가

30:7, 8.

## 2.

가.

가? 49:16.

가? 10:16; 12:7, 8.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판단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초기문집, 102.

“누구든지 자기가 어느 일에 부르심을 받을는지 예견하기가 불가능하다. 민첩한 판단력과 조리가 정연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기가 놓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257.

“기지와 옳은 판단력은 교역자를 백배나 유용하게 한다.” - 복음 사역자, 119.

가?

49:21 ( ).

“만일 [피어스 형제가] 수줍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는 더욱 행복할 것이며 남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630.

15; 5:18.

가? 33:23; 4:4, 6-8, 14,

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며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 특권은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소심하던 사람이 용감하게 되며 결단력이 없던 사람이 단호하고 민첩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2권, 167.

## 3.

가.

가? 49:17.

가

가? 3:5-8.

“[약 3:15-18 인용됨] … 원수의 암시에 마음 문을 열어 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心事)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그리고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인양 그가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 버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이다.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조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라.”  
-성경주석[E.G. 화잇] 7권, 936, 937.

가

가? 18:1, 2, 26 - 30.

(匠人)

가? 2:1,

11 - 14.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는 공예 부문에 특별한 솜씨를 가진 자들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었다. 한동안 이 사람들은 겸손과 무아심을 유지하였으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당신의 진리를 상실하였다. 저들은 공예 부문의 탁월한 기술을 핑계로 하여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저들의 요구가 허락된 적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자들은 이웃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저들의 조상들의 마음에 충만하였던 헌신적인 고상한 정신 대신에 탐욕의 정신에 빠져 더욱 욕심을 부렸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교의 왕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였고 저희 창조주께 욕되는 일에 사용하였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74, 175.

## 4.

가.

가? 49:21( ); 16:24; 12:36, 37.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을 폭로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야비한 것과 결합된 것에서 돌아서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함을 찾아내는 모든 행동, 비난과 정죄의 모든 말이 고통스럽다.” -교회증언 5권, 96.

“주께서 자비하심을 맞본 자들은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중상하는 말을 하는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은 ‘이 접시를 치우라. 나는 이런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떡이 아니다. 사단의 바로 그 정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58.

가

가? 6:16-19.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사람들끼리도 사랑할 줄 모른다.” -성경주석[E.G. 화잇] 7권, 937.

가

가

가? 25:9; 18:15; 6:1.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혀들이 있다는 말을 하기가 괴롭다. 해악(害惡)을 길러 주는 거짓 혀들이 있다. 교활하고 수근거리는 혀들이 있다. 잡담을 늘어 놓고, 당치 않게 간섭하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일이 있다. 험담을 좋아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매개로 사용하시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렇게 한다. 이 모든 불화의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거나 심지어 의심하는 것까지도 모두 공개하고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여기는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숨긴다.” -교회증언 5권, 94

## 5.

가.

가? 101:5; 2:1-3; 4:11, 12.

“흠을 발견하는 인물들과 연합하고,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그대의 문간에 쌓아 놓은 비난에 마음을 쏟는 것은 그대 자신을 원수의 손아귀에 빠뜨려 그의 사업에 성공시킴으로써 원수의 사업에 후원하는 행동이다.”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266, 267.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계신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결점 많은 품성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가혹하고 비판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바르게 하라. 나는 철두철미하게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거짓된가라고 날마다 자문해 보라.” - 교회증언 5권, 97.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린 바 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 교회증언 5권, 130.

가

가? 7:5-8; 15:1-3.

“만일 각 사람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말해 주는 자들이 유리한 기회에 그의 결점도 마음대로 널리 알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험담의 세계는 예방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좋게 생각하되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나쁜 소문을 성급히 신임하지 않아야 한다. ... 어떤 형제가 잘못한다면 그 때는 그에게 대한 그대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친절하게 그를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하신 무한한 대가를 기억하면서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 줄 수 있다.” - 교회증언 5권, 58, 59.

## 7 : 32

1. 어떻게 라헬의 태도가 빌하의 자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이런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가?
2. 무엇이 납달리처럼 하는 자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해서만 이 지파의 남은 무리가 될 것인가?
3. 단의 문제점을 설명하라.
4. 말에 관하여 어떤 위험들이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5. 왜 판단하는 정신이 그렇게 파괴적인가?

“

( 49:19).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접근하라. 그대들의 말들을 은혜의 기쁨에 적시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라.”  
-성경주석[E.G. 화잇] 6권, 108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3권, 273-275.  
*우리의 높은 부르심*, 125.

8월 5일

1.

가.

30:9.

가?

가?

10:12.

“각 사람은 시기, 적대, 불신, 흠을 찾는 것, 그리고 불화의 정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 우리는 한 가족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쌓아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존경과 영향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그분을 슬프시게 한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귀한 생애에서 나타내신 친절과 자비는,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인 자들을 취급하는 방식에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222.

.

가? 30:10, 11; 33:20.  
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이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키어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9.

## 2.

가. 가? 30:12, 13;  
49:20.

가

55:21.

“그대들의 신앙생애에서 조차 아첨하는 말을 받지 말라. 아첨은 사단이 스스로를 높이는 인간 대리자를 속이고 과장되게 칭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술책이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04.

“아이들에게 주의를 적게 주어라. 그들이 스스로 즐겁게 노는 것을 배우게 하라. 손님들 앞에서 비범한 재치나 지혜를 자랑삼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어린이의 단순함 그대로 방임하여 두라.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건방지고 대담하고 뻔뻔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지나친 주의와 칭찬을 받으며, 그들의 영특하고 지혜 있는 말을 그들이 듣는 데서 반복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꾸지람이나 지나친 칭찬과 아첨을 하지 않도록 하라. 사단은 그들의 어린 마음속에 너무도 신속하게 악의 씨앗들을 뿌리려고 노릴 것이므로 그대는 사단의 일을 도와서는 안 된다.” -새자녀 지도법, 37, 38.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助手)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이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며 만민의 마음에서 우리나는 찬송이 그분께 올라가도록 하라.” -실물교훈, 161, 162.

가? 37:2( ).

“만일 선한 사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지 않은 채 버려둔다면 활동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는 사단이 제안하는 것에 눈을 돌릴 것이다.” -새자녀 지도법, 33.



## 3.

가. 가? 12:8, 14, 15.

가? 49:1.

가? 11:1, 6, 32, 33; 11:32.

“오, 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임재를 막은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길르앗 사람 입다를 구원자로 등장시키셨는데 그는 암몬인들과 전쟁하여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58.

가?  
17:1; 2:11.

“엘리아는 보편적인 배교 가운데서도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애쓰지 않았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 그 제사장들은 400명, 그를 섬기는 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가 대중의 편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홀로 섰다. 산은 열렬한 기대에 부푼 사람들로 덮였다. 왕은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은 그를 환영하는 소리를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모욕을 받아 오셨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분명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엘리아는 많은 군중에게 외쳤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왕상 18:21). 그 결과로 하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옹호되고, 바알을 경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오늘날의 엘리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증언 5권, 526, 527.

## 4.

가.

가? 33:24.

가?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의 기름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기록되었는지 말씀되었는지 어떻게 주어졌던지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라.”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04.

“성급한 말은 집안에 얼마나 큰 손상을 가져오는지 모른다. 대개의 경우 한 사람의 성급한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정신과 태도로 양갈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대꾸와 자기 옹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러한 말들로 인해 그 대들 자신의 목에 무겁고 쓰라린 멍에를 메게 된다. 그것은 이런 모든 가혹한 말들이 그 대들의 심령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데 대하여 심한 가책과 후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모든 자극을 묵과하고 만사를 그리스도와 같은 운유와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마음 속에 은혜의 기름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27.

가?

2:36 - 38.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에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 시대의 소망, 55.

“갈바리의 십자가는 장래의 더 고상한 세계,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저택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는 열성당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바라보도록 열심을 다하여 각성시킬 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마음을 땅으로부터 제거하여 하늘에 애정을 두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동반자들로 취하여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늘 왕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시민들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시민들로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며 순례자로서 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 영문시조, 1891.8.17.

## 5.

가. “ ” 가?  
 49:19; 5:18, 20. 가?  
 7:5 ( ).

“그대의 유일한 소망은 그대의 타락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빛이 비취도록 하셨다. 그대의 부패한 길을 택하겠는가? 악의 길을 가는 동안 진리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그 진리를 버릴 것인가? 오, 바라노니,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옷을 찢지 말라.’ 영원을 위해 철저히 일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한 기도에 응하시리라. 그분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돌아서겠는가? 살고자 하는가? 그대의 영혼은 구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귀하다. 우리는 그대를 돕고 싶다.” - 교회증언 2권, 303.

. 33:25; 30:11; 4:10; 7:6 ( ).  
 144,000 가  
 가? 3:12 - 15.

“죄인에게 경고하며 그들을 위해 울며 간구하는 일이, 많은 영혼들이 구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 중에서 죽었다. 심판 때에 그들은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죄의 이유를 책망할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506.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표준에 달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아신다. 우리는 매일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달 앞서 힘을 미리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 성경주석 [E.G. 화잇] 7권, 974.

## 7 : 25

1. 실바의 자손들은 태어남으로부터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2. 육신적인 것 지파 사람들을 거듭난 자들과 비교하라.
3. 아셀 지파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의 차이점을 말하라.
4. 그대들이 알고 있는 배교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라.
5.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매일 충분한 힘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하는가?

“ 가 ( 6:2).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32.

참조할 연구교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14.  
교회증언 6권, 305-309.

8월 12일

## 1.

가. . 30:17, 18. 가?  
49:14. 가?

“누군가가 전진해야 한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분께 결과를 맡기고 감행해야 한다. 이런 일을 꺼리고 있는 목사들은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체험을 얻는 일에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 -교회증언 3권, 14.

가? 49:15.  
가?

“응급 사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일꾼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해야 되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지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즉시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쫓아 버려야 한다. 그는 비상시에 과외의 일을 요청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 과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기꺼이 도우려고 해야 한다. 그때에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료봉사, 176, 177.

## 2.

가. 가 . 5:15.

. . 12:31; 6:2.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으로써 몸과 마음과 영혼의 헌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면*, 32.

. 가? 12:32.

. 가? 16:13, 14.

“엄숙하고 신성한 진리-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하는 기별-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변화되므로 진리의 능력이 잘 나타나게 할 가장 강한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지운다. 우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언이 선언한 무서운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 *교회증언* 4권, 612.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위험하고,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야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슬프다고 해도 경계를 소홀히 할 구실이 되지는 못한다. 환난이 온다고 부주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두 배로 경성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 궁핍과 고민과 위험의 때에 교회가 그 능력의 근원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다. 경성하는 자세는 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꼴 짓는 것이다. 이 모습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그들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임을 보여 준다.” - *교회증언* 2권, 205.

## 3.

가. 가 . 15:25 - 34;  
16:1 - 5.

가? (  
) 28:7; 10:13, 14.

“어두움이 덮이자 사울과 그 시종들은 평야를 건너 블레셋 군대를 무사히 지나 산등을 넘어 엔돌의 마녀가 사는 쓸쓸한 집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께 모독적인 이교의 주문(呪文)을 계속해서 은밀히 외우려고 숨어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679.

가? 7:1, 5.

“사업의 중심부에서 마땅히 배출시켜야 할 선교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 그러나 경건이 너무 쇠진해지고, 헌신의 정신이 너무 약해지고, 세속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너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 분위기는 선교적 열성에 치명적인 혼수상태를 이루어 놓고 있다. …

“그대들의 영적 태만을 벗어 버리라.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웅변적인 연사가 아니다. 엄격한 진리를 요점이 분명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 활동하는 사람들, 교회의 정결과 세상의 경고를 위하여 열렬하고, 중단 없는 정력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위대한 사업이 성취되어야 하고, 더욱 넓은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음성이 발해져야 한다.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위기에 사업을 추진시킬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순교자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 교회증언 5권, 187.

## 4.

가.

4:8 - 10.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능력 있는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했던 친절할 정신이 그가 수넴에 있는 한 가정과 친분 관계를 맺은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온 나라를 이리저리 여행하는 중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집 주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남편에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 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시이다’ 하였다(왕하 4:8). 엘리사는 가끔 이 휴식처에 들렀고 그 조용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감사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 *선지자와 왕*, 237.

25:40.

4:12 - 20, 32 - 37;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어떤 불편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유익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한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교회는 그 교회 목사들이 이런 일에서 과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 *교회증언 2권*, 645.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일어나서 좋은 씨를 파종하기 시작하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추수가 이르렀다. 이 큰 추수 때에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수확물에는 실패가 없다. 추수는 확실하다. 지금이야말로 파종의 시기다... 환대의 정신을 기르고, 필요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라.” - *교회증언 2권*, 31.

“실의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물이 울려 퍼질 것이다. 정의와 자비와 자선의 행위는 하늘에서 노래가 될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25.

## 5.

가. 가 가? 30:17 - 20. 가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겔 33:11).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그들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상태로 그 죄악 중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 (사 27:5)자고 초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격려가 주어졌다.” - 선지자와 왕, 325, 326.

가 가  
가? 7:7 ( ).

“우둔함과 무지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대는 자신을 연단하고 개선할 결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에 박은 듯한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의 능력을 잘 가꾸어서 사방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대는 그대가 열심으로 행하는 일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16.

## 7 : 16

- 어떤 사람들은 왜 잇사갈 지파가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 있는가?
- 잇사갈 지파는 왜 그들이 더욱 저희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는가?
- 잇사갈의 역사속에 있는 흥미있는 몇가지 점들을 말하라.
- 그대나 그대가 소속된 지역 교회가 친절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라.
- 잇사갈 지파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

”( 5:18).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실물교훈*, 19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7권, 150-152.

*시대의 소망*, 236-243.

8월 19일

1.

가.

가? 30:20.

19.

가? 49:13; 33:18,

가

가?

“사고파는 일로 소란한 세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기에 바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고 하신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나팔처럼 혼란한 세상에 울려 퍼졌다.” - *복음전도*, 559.

“대체로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부자들, 자만한 사람들은 저들의 경험을 통하여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액의 돈과 값비싼 건물들과 가구들과 그림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이 갖지 못한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저희들 상호간에 끌려가고 있으므로 저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들은 저희 자신에게 안식과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어떤 대상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들은 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 *복음전도*, 556.

“건강을 위한 휴양지와 관련하여 일을 할 때에 틀림없이 좋은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 목사들과 문서전도자들은 현지에 나가서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 *복음전도*, 406.

## 2.

가.

가? 5:14 ( ) .“ ”  
가?

“현대 진리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실질적인 믿음과 경건을 강조하는 책들과 예언의 말씀을 취급하는 문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람들은 성경의 살아 있는 빛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때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 *교회증언* 7권, 158.

“모든 사람은 지금 성취되려 하고 또 영혼의 영원한 복리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출판하도록 하라.” - *저작자들에게 보내는 편* 13.

“전도자들은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설교하는 것보다 간행물과 전도지를 분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출판물이야말로 진리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전도자들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능력 있는 방법이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75.11.4.

가? 5:18.  
가?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 군주들보다 더 크신 분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말씀들을 전해야 한다. 그들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쓰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신다.” - *선지자와 왕*, 142.

## 3.

가.

가? 5:19;

5:2.

“제단에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할 지원자 곧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에게 현저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은 우리의 수효나 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헌신, 도덕적 용기,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지칠 줄 모르고 쇠하지 않는 열심이다.” - 교회증언 3권, 404.

“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지역으로 들어갈 지원자들을 부르는 더욱 열렬한 호소가 없는가?” - 교회증언 8권, 35.

가 가 12:23, 33.

가? 1:8.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던 간에 종내에는 원수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 명예를 같이 하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이며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 성경주석[E.G. 화이트] 5권, 1086.

“만일 우리 형제들이 지금 저들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분께서는 저들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므로 저들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깨어라. 그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166.

## 4.

가. 가 가 가?

9:1, 2.

가? 4:13-17.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여행의 여가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므로 그곳은 ‘예수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었다. 실제로 게네사렛의 아름다운 평야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었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이곳저곳 여행하는 길에 쉼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부자와 위인과,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함께 만날 수가 있었으며 그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하여질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관심은 구주에게로 향하여지고 예수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 시대의 소망, 252, 253.

“ ” 가? 8:12; 4:6.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 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고후 4:6)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149.

## 5.

가.

가? 7:8 ( ).

가?

1:9; 4:8-10.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 걱정하게 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면, 그대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절반만의 회개를 받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죄를 버릴 것 같으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 그대들은 지금 곧 그분께 굴복하겠는가? 그대들은 갈바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물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위하여 이 희생을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범 죄의 고통과 절망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여 그분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굴욕과 수치와 비난을 견디시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대의 죄 때문에 찢림을 받으신 분을 바라보고 결심하라. ‘주님께서서는 나의 생애의 봉사를 받으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의 원수들과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의 정부를 반역하는 자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자체는 나를 것처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 -그처럼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자를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몸을 모두 주신 분에게 바치기에 너무 작다.’ 세상과 분리되어 완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천성의 문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계속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영광스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438, 439.

## 7 : 07

1. 휴양지에서 어떤 기회들이 선용되어야 하는가?
2. 문서들은 왜 각 교회 교인들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희생정신을 더욱 배양할 수 있는가?
4. 예수님께서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말하라.
5. 참된 회개의 주요한 요소 몇 가지를 말하라.

마르티니크는 서인도 제도의 동부, 소(小)앤티리스 제도에 있는 화산섬으로 면적 1,102km<sup>2</sup>. 인구 약 37만(1992)이며 프랑스의 해외현(縣)으로서, 주도(主都)는 포르드프랑스이다. 섬의 북동쪽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고 하천도 많지만 남서쪽은 매우 건조하다. 평균 기온은 26℃이며, 연교차는 적다. 북쪽에는 펠레 화산(1,397m)이 있으며, 그 기슭은 농목지로 활용된



다. 사탕수수·바나나·곡류·파인애플·카카오·커피 등의 농산물 재배와 소·돼지 등의 축산업, 제당·럼주(酒)·과일 통조림 등의 가공업이 활발하다. 특히 설탕과 바나나가 주산물로 수출의 80~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식인 쌀과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한다. 포르드프랑스는 천연의 양항이며, 수출입을 담당한다.

개혁기별이 마르티니크에 소개된 것은 20세기 후반기였다. 동부 카리브 해에 있는 프랑스의 해외 주[州]인 과들루프와 같은 대회의 행정의 지도를 받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도가 85%이며 개신교도는 10.5%이고 이슬람 교도와 힌두교도가 각각 0.5%이다.

해로 및 항공로로 프랑스·미국·영국과 연결되며, 주민은 아프리카계 흑인과 백인(주로 프랑스인)이다. 해안에는 산호초가 있으며, 관광지로서도 중요하다. 1502년 콜럼버스가 발견하여 17세기부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쟁탈전이 되풀이되었으나, 1815년에 프랑스령으로 확정되고, 1946년에 해외현이 되었다.

지금 이곳 교회는 특히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주위의 섬들에 현대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마르티니크의 복음사업을 위한 적합한 선교본부이다. 여러분의 도움이 크게 요구되며 이곳 사업을 위해 관대하게 드러주시기를 받고 감사를 드린다.

-마르티니크 대회 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

”( 18:35).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부조와 선지자, 214.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209-223.

교회증언 6권, 219, 220.

8월 26일

1.

가.

. 30:22 - 24.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 [요셉]은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 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력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09.

7

가? 37:1 - 11.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210.

## 2. 가

가. 37:13, 14, 23 - 28.

“[요셉은]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겹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 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 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었다.” - 부조와 선지자, 211, 212.

가

가?

39:1 - 3.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요셉은]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臣民)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213, 214.



## 3.

가.

가? 39:4 - 12.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시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마는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 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 부조와 선지자, 217, 218.

23; 105:16 - 22.

39:13, 14, 19 -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시 105:18)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 부조와 선지자, 218.

## 4.

가.

가? 41:41 - 44; 4:11, 12.

“그리스도의 기쁨은, 순결하며 완전한 즐거움이다. 이것은 헛된 말이나 품행을 경솔하게 만드는 값싼 환락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저는 완전한 복종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라. 그런 후에 즐거워하라. 말씀이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의 품성을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들의 얼굴에 불안과 슬픔을 나타내며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의 성품의 참여자인 우리 각 개인에게 그분의 얼굴의 사랑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148.

가? 45:4 - 8; 50:19 - 21.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였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 *부조와 선지자*, 239, 240.

## 5.

가.

가? 49:22 - 26;

5:1.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의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 *부조와 선지자*, 234.

“야곱은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 49:22, 25) 라고 말했다.” - *실물교훈*, 214.

가? 33:13 - 17.

“ ”  
가? 7:6 ( ), 8 ( ).

“그리스도교는 전진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큰 노력과 계속적인 희생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지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들 개인의 의무를 감당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면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보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해져야 한다.” - *교회증언* 5권, 71.

## 6 : 58

1. 요셉의 초기 생애를 묘사하라.
2. 요셉은 그 아버지의 종교를 어떻게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3. 무엇이 감옥에서의 요셉의 관심의 초점이었는가?
4. 어떤 방법으로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슷했는가?
5. 십자가와 면류관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라.

“

( 49:27).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가 만약 깨어서 이스라엘의 크신 협력자의 힘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면 그는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성경주석 [E.G. 화잇] 2권, 1017.

참조할 연구교재: 사사기 19장-21장  
교회증언 4권, 200-205.

9월 2일

## 1. 가

가. . 35:16 - 19.

가? 42:36 - 38. 가 가

“많은 가정에서 거의 유아기 동안에 허영과 이기심의 씨가 어린이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다. 그들의 귀여운 몇 마디 말들과 행동들이 그들이 있는 데서 칭찬되고 찬양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되어 되풀이된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주목하고 자아 존대 로 의기양양해진다. 그들은 감히 대화를 가로막으며 건방지고 뻔뻔스러워진다. 아침과 멋대로 하도록 두는 것은 그들의 허영과 외고집을 기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장 어린 것이 아버지 와 어머니가 포함된 전 가정을 다스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되어 버린다.” - 교회증언 4권, 200, 201.

## 2.

가.

가? 49:27.

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정복되지 못한 기슴은 그 속에 안식과 만족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지성과 마음은 훈육을 받아야 하며, 품성이 우리 존재를 다스리는 현명한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제지 아래 두어야 한다. 불안정과 불만족은 방종과 이기심의 결과이다. 마음의 토양은 정원의 그것과 같이, 귀한 꽃씨들이 거기 심기어지고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않는 한 잡초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가시적인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회증언 4권, 202, 203.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전체적인 통치자가 되며, 외부 세계에는 부분적으로 감추지 않을 수 없었던 이기적이며 불합리한 성미를 드러낸다.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그들의 초기 훈육의 온갖 잘못들을 극도로 느낀다. 어찌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들과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들의 종교적인 경험은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에 의해 풀지어진다. 교회의 번영에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의심과 불만을 갖고 돌이켜 떠나게 만드는 서글픈 시련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둔 데서 생긴 소산, 즉 정복되지 못한 반역적인 정신에서 대체로 일어난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성이 정의의 위하도록 쉽게 영향을 받고 정다운 어머니의 의지에 굴복될 수 있을 때인 어린 시절에 제어할 수 있었던, 급하게 일어나는 격정의 영향 아래서 얼마나 많은 생애들이 파멸되며,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는가! 무능한 자녀 훈육이 엄청난 양의 도덕적 비참함의 기초에 놓여 있다.” -교회증언 4권, 202.

가

가

20:4, 5, 12 - 14, 23, 46.

가? 21:1 - 4, 13 - 15.

## 3.

가. 가 . 20:15, 16; 8:40;  
12:1, 2.

. 가 가? 2:3;  
8:1( )-3; 4:20, 21.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재능을 소유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사람에게 유혹의 손을 끊임없이 뻗치고 교만과 야망으로 부풀게 하고자 언제나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 십 중 구는 너무도 흔히 독존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상태가 되어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건강에 관한 권면*, 367.

“만일 지금 인기의 파도를 타고 있는 자들이 현기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비의 기적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같은 처지에 있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들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이기심 없이 자신을 바치고 원칙에서 추호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영원한 팔로 그들에게 강한 조력자가 되심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 *교회증언* 4권, 538.

“기울인 노력에 성공이 따르면 선천적인 마음속에는 교만해 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대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또 그대가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대가 만일 교만해 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파멸의 땅에서 있는 것이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좁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뿐 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 작은 죄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 - *성경주석* [E.G. 화잇] 6권, 1080.

## 4.

가.

9:17, 21; 10:1, 9; 15:16 - 23, 28; 18:11.

가

가?

가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즉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분은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사단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결함을 고치고자 당신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민감한 성질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일에서는 물론이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추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한 생애를 잠식하고 있다. 의에서 벗어난 길에 들여놓은 발은 사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퇴행성 운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디에 가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기 위함이다.” - 성경주석 [E.G. 화이트] 2권, 1017.

가? 8:3;

9:1 - 6.

( )

3:4 - 7.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봄으로써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된다.” - 실물교훈, 394.

## 5.

가.

가? 33:12.

가

. 2:5; 3:13; 4:1-3; 8:7, 8, 15-17.

“모르드개는 전에 하만이 차지했던 영광의 지위를 얻었다. 그는 ‘아하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꺾을 받’ (에 10:3)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선지자와 왕, 602.

12,000

가? 7:8( ).

가? 65:25.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생애를 살아왔다고 자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정죄를 받고 그들의 범죄를 통회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받는다.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울 때 그들은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된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값을 헤아려본 후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응모하였다. 싸움은 그들 앞에 있다. 그들은 용감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의 선천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싸워 그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시킨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개심이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3, 74.

## 6 : 48

1. 애정 있는 부모와 교사들은 어떤 점을 주의깊이 고려해야 하는가?
2. 초기 자녀들이 장래의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3. 선천적으로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위험을 말하라.
4. 사람들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묘사하라.
5. 무엇이 참된 개심인가?



“

( 4:17).

“만일 그대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258.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212-218.  
*교회증언* 4권, 89-94.

9월 9일

1.

가.

가? 48:1, 2.

가? 48:3,

4.

가? 48:5.

가? 48:9, 13-20.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司祭)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 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이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창 48:5 인용됨.]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의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 부조와 선지자, 234.

## 2.

가. 가? 33:17 ( ).

가 가 가  
가? 9:11 - 13.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효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대 논증은 되지 않는다.” - *시대의 소망*, 459, 460.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意志)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404.

가?  
7:24, 25; 8:1 - 3.

가  
가 가? 31:20; 11:13.  
가?

“질투와 증오와 시기와 악한 험담이 사라지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심령에 받아 드려지거나 흘러들어갈 수 없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49.

## 3.

가.

가

가

가?

11:29 - 38; 12:25 -

33.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는 민정(民政)에 있어서나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슬기롭게 개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는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임을 보여 주었고 그가 여러 해 충실하게 봉사하는 동안에 얻은 지식은 그로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였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염려는 장차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통치자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열 지파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움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 선지자와 왕, 99, 100.

가? 5:2; 27:4; 14:30.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과 모든 인류를 파멸시켰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특성과 고상한 행동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는 언제나 비방하기에 민감하고 탁월한 것을 허위로 대표한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결함들을 고백하고 버리지만, 질투하는 사람에게서는 마랄 것이 거의 없다. 사람이 질투한다는 것은 그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존심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 주고자 시도하면 그는 그의 감정의 대상에 대하여 더 한층 가혹해지고, 너무도 흔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는 용감하고 자아부정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탁월의 고지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해당되는 공로를 감소시킴으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 교회증언 5권, 56.

## 4.

가.

7:8 - 16.

가?

11:3 - 9, 12 ( ).

“[호 7:9 인용됨.]... 이스라엘 중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명성이 손상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약화시킨 행위에서 돌아서는 대신에 어떤 사태가 돌발할 때에는 이교도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저희가 바라는 정치적 세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믿고 불의를 계속 행하였다.”  
- 선지자와 왕, 280.

144,000

가

가?

78:9 - 11, 8:9, 11 - 13; 4:17.

가?

“G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 그대를 부르신다. 진리가 그대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그대의 품성을 꼴짓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G 형제여 그대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으킴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새 삶을 주셨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영혼에 시기와 질투심을 품었으며, 그분을 매우 불쾌하시게 하였다. 그분은 그대가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곳, 그대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그대를 이끌고자 하셨다.” - 교회증언 4권, 91, 92.

“그것은 연약한 본성을 지닌 C형제가 그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사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의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는 은혜의 기간에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느리다. 그의 지각은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흐려져 있으며 거의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것 같으면, 그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그의 결점들을 정복할 수 있다.” - 교회증언 4권, 39, 40.

## 5.

가. 가 가? 2:10-12, 17-22.  
가? 16:13; 13:6-9.

“발해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의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 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시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호 11:8)는 말씀을 외치신다.” - *실물교환*, 216-218.

가? 4:4-7; 3:3-7.

“그대가 자신의 영혼을 철저히 돌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아를 지배하도록 모든 수고를 다하기를 원한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는 그대를 피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93, 94.

## 6 : 38

1.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가?
2. 하나님의 은총은 수효가 많은 것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3. 여로보암의 질투는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었는가?
4. 왜 질투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라.
5. 오늘날 영적 에브라임 사람들을 위하여 소망의 유일한 과정을 묘사하라.



## 2.

가. 144,000

가

가? 11:13, 17, 19 - 21.

가

가? 11:18, 22 - 25.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를 느낀다. 그들이 이 필요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투쟁이 시작된다. 그들 자신의 의지, 아마도 그들이 택한 애정의 대상자나 직업을 버리는 데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내외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가지가 산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참포도나무의 산 가지가 될 수 있다.” - 교회증언 5권, 47.

가? 4:6; 3:11,

16.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 8:12)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 - 실물교훈, 306.

## 3.

가.

가 .  
가? 32:24 - 26.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만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형의 증오라는 수확을 거두었다. 그는 이십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그 아들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

“야곱은 고난 중에 압도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회개하고 자기 형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분노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 교육, 146, 147.

가? 32:27 - 29; 12:2 - 6.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천사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대신 들어 앉은 자)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 32:28)고 말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197, 198.

“죄 사함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더 이상 대신 들어앉은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왕자로서 일어섰다. 그는 단순히 그의 격노한 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았다. 그의 본성에 있던 악의 세력은 깨어지고,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다.” - 교육, 147.



## 4.

가.

가? 6:33; 11:12.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다. 그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5권, 1089.

“우리가 이 땅에서 형성하는 품성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 건설에 어떤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구원하는 진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생애를 정결하게 하며 모든 면에 잘 감시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죄를 버리고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결심하고 구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시며 당신의 나라에 있을 장소에 적합하도록 하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1.6.11.

가? 3:7-14.

“하나님께서서는 그대가 더 이상 유혹하는 자와 장난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모든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는 자신의 품성으로부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빨리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작업장 안에 있다. 만일 그대가 거친 각이 제거되도록 자르고 평평하게 하고 대패질하는 공정에 굴복한다면, 웅이와 편평하지 않은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깎으시는 칼에 의해 알맞게 되어 그대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건물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자아에 집착하고, 하늘의 건물에 적합하게 해 주는 시련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도끼나 망치의 소리 없이 짜 맞추어질 건물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258.

“전쟁은 그대의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위해 이 전쟁을 싸워 줄 수 없다. 다른 이들은 그대를 위해 기도할 뿐이며, 이 일은 전적으로 그대의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258.

## 5.

가.

13:44 - 46; 2:9.

가?

“심판 날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진다. 그들은 그들이 충실해지기를 거절하므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고상하고 순결한 교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 초청은 끝났다.” - 교회증언 7권, 16.

가? 5:18 - 20.

가? 7:6 ( ).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뵈옵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앎으로서 시련에 부딪쳐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 초기문집, 67.

## 6 : 27

1.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 하나님의 감람나무의 접붙여진 가지들로서 무엇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3. “이스라엘”이란 용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라.
4. 마 6:33; 11:12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5. 그리스도인의 목표의 가치에 관하여 그대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몇 가지 점을 말하라.

# 144,000

“

가 가  
( 14:4).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쁨을 입을 자들일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

참조할 연구교재: 초기문집, 36-38.

교회증언 5권, 207-216.

9월 23일

1.

가.

가 가? 50:15-18.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은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225.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부조와 선지자, 233.

가? 8:29; 14:30.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123.

## 2.

가. 가 . 3:13; 14:5,  
12; 12:17.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룬 연합은 지속적이다. 모든 다른 연합은 파멸되고야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 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 가운데 첫째요 마지막이요 최선의 것으로 택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치르게 한다. 그것은 교만한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철저한 의존의 연합이다. 이 연합을 이루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한다. 외적 장애와 내적 장애로 더불어 싸우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애착의 과업은 물론이요 괴로운 분리의 과업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모든 형태의 죄-을 이겨야 한다.” -교회증언 5권, 231.

. 가? 8:12; 16:13 ( );  
17:17.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하므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교회증언 5권, 216.

. . 2:1-8;  
3:11, 14.

. 가? 37:11.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초기문집, 71.

## 3.

가. . 9:4-6; 7:1-3.

“그 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큰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고 외쳤다.” -초기문집, 38.

“천사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하나의 표를 할 것이며, 밀폐시키는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죽일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05.

. 가 가? 20:8-11; 20:7; 20:12.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입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입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성경주석[E.G. 화잇], 4권, 1161.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시내 산에서 그토록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신 율법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 중에서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우리는 크신 입법자를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이요, 그 벌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주석[E.G. 화잇], 4권, 1162.

## 4.

가.

가? 24:3-5; 5:8; 12:14.

“교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들의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남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전하고 쾌활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만일 그들의 경험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느 날 심한 탄식으로 음성을 높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나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왜 나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았던가? 왜 나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였던가?’”  
-교회증언 9권, 48.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허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16.

가?

7:4; 14:1, 9-12. 가 가 “ ” “ ” “ ” “ ” “ ”  
가?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 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와 손가락으로 기록한 열 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 있는 법계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락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썩을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43. [1849년판.]

5.

가. 14:13 가? 144,000 가  
가? 12:1, 2.

“ [ ] : [ 14:12, 13 ] ” - 6 ,  
15.  
“ 가  
( 14:13 )  
.” - 1 , 55, 56.  
가  
, 285.  
.” - , 640.  
“ 가 , 15.  
144,000 가? 14:2 - 4; 15:2, 3.

“ [ ] , 649.  
144,000 가 , 1905.39.  
.” -

6:17

- 1.
- 2. 가?
- 3. 144,000 가?

# 첫째 안식일 연금들



7월 7일  
 ◀ 스리랑카  
 (4 p. 참고)

8월 4일  
 전 세계의  
 선교학교  
 ▶ (25 p. 참고)



9월 1일  
 ▶ 마르티니크  
 (46 p. 참고)